

<별빛 아래 체크메이트>

독서 활동지



글 알렉산드로 바르발리아
옮김 황지영 | 232쪽 | 13,500원

①

아래의 지문을 읽고 자신이 주인공 티토와 같은 상황이라면,
아빠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적어 봅시다.

아빠는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으며 당연히 전화를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. 늘 혼자 소파에 앉아서…… 책을 읽고 또 읽기만 했다.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내게도 거의 말을 걸지 않았다.

아빠는 일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했다.

(중략)

아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? 그걸 누가 알 수 있을까? 아무 말도 해 주지 않는데.

②

티토는 어째서 잘 알지도 못하는 체스 대회에 참가하려고 했을까요?
상황을 이해하고 원인을 유추해 봅시다.

③

아래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들의 성격을 추측해 보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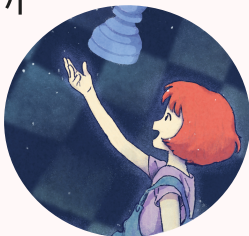
"비키, 대체 왜 창문으로 들어온 거냐고!"

"아, 그거야 열려 있었으니까. 닫혀 있다가의 반대말이지."

"나라면 절대로 네 집에 창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!"

"그건 네가 재미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야. 내게 제일 좋아하는 지루한 친구."

비키



티토



4

아래의 지문을 읽고 티토처럼 친구 혹은 가족과의 관계를
숫자로 표현해 보세요.

"9와 1, 2와 8, 3과 7, 4와 6, 5와 5가 뭔지 알아?"

"네 전화번호야?"

"비키, 난 휴대전화가 없잖아! 이건 합이 항상 10인 숫자들이야.
10은 행복한 숫자야. 완전하니까. 친구라는 건 어떤 날, 네가 1이
라면 나는 9일 거라는 뜻이야. 그러면 우리가 더 행복할 테니까.
더 완전할 테니까. 반면 네가 8이라면 나는 2가 될 수 있겠지. 우
리의 합은 늘 행복한 숫자일 거야. 친구란 늘 최고의 상태를 유지
하는 게 아니라, 부족한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거야. 둘 중 한 명
이 힘들 때 친구에게 기대면 된다는 걸 아는 거지."
